



아~ 잊지 못할 여고 졸업식 3일 광주시 서구 상일여고에서 열린 '제6회 졸업식'에서 졸업복을 입은 여고생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념촬영을 하며 마지막 학창시절 추억을 남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설 민심... 화두는 '총선'

더민주·국민의당 설 연휴 호남 표심잡기 총력

호남민심 수도권 표심에 직결

거리 홍보·토크 콘서트 열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최대 화두는 4·13 총선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에서 일당독점 체제였던 정당 구도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양분되면서 호남 정당전 승자가 누가 될지가 최대 관심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3·4면〉

이에 따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설 연휴기간 지역 민심에 '울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남 민심은 수도권 호남 향우들의 표심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민주는 '민심 회복'을, 국민의당은 '민심 잡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유권자들 또한, 양 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재벌계제 재편 및 중소기업 개편, 신산업 전략군 선정,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함께 잘사는 정의로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6일 광주 광천터미널과 송정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각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참여한 대대적인 국민 의당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바퀴' '혁신'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귀성객들과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중앙당 선대위원과 비대위원을 맡은 이용섭 전 의원은 주경야광(晝夜夜光·낮에는 중앙당, 밤에는 광주 지역 활동) 민생행보에 나서는 등 더민주 현역 의원을 비롯한 출마예정자들은 연휴기간 동안 선거구 내 민심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일 창당한 국민의당도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에서 기선 제압에 나선다. 국민의당은 4일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와 경제전문가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광주를 찾아 국립 5·18묘지를 참배한 뒤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공정성장으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는 재벌계제 재편 및 중소기업 개편, 신산업 전략군 선정,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함께 잘사는 정의로는 대한민국의 비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6일 광주 광천터미널과 송정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각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참여한 대대적인 국민 의당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바퀴' '혁신'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귀성객들과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또 설 연휴가 시작되는 6일 광주 광천터미널과 송정역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각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참여한 대대적인 국민 의당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바퀴' '혁신'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귀성객들과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 국가철도망 구축... 호남은 쏙 뺏겼다

국토부, 2025년까지 10년간 81개 사업 80조 투자 3차 계획안 공개

서해안철도·호남고속철 2단계·제주해저터널 등 신규사업 반영 안돼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신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과 비교해 지적된 것이 없다는 점에서, 호남권 철도망에 대한 신규 투자가 15년 이상 정체 상태인 셈이다. 이에 반해 수도권과 영남·충청권은 신규 노선을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어, 기반시설 측면에서 호남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국토교통부는 4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에 앞서 3일 구축계획안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요청한 신규 철도사업 101개 가운데 재정여건을 고려해 기존 시행사업 49개와 신규사업 32개 등 모두 81개 사업에 8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호남권의 경우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최근 제주공항 마비사태로 급부상한

'서울~제주 해저터널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물론 서해안고속철도(군산~목포, 사업비 3조5000억원), 익산~여수 고속철도(현재는 고속화철도) 등이 모두 제외됐다. 2차 계획에 포함됐던 광주~대구 내륙철도(4조8987억원)의 경우 추가 검토사업으로 선정, 역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3차 계획에 들어있는 경전선 진주~광양(57km·1524억원)·광주송정~순천(116.5km·2304억원)은 이미 2차 계획 당시부터 각각 2015년, 2020년까지 공사 착수가 예정된 사업이다.

실질상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새로 설치되거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노선이 없는 셈이다. 전남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의 무안공항 경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해안고속철도의 경우 호남고속철과 기능이 중복되고,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단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총 길이 167km, 사업비 16조8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서울~제주 해저터널과 관련, 3차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제주 해저터널 사업은 일단 과도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경우 우선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19.2km구간에 8935억원을 들여 복선전철을 설치한다. 올해 8월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개통해 수서역에서 부산, 목포행 고속철을 타는 것은 물론이고 수서~광주선이 신설되면 강원도와 중부내륙행 철도를 수서역에서 타고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경부고속선 수색~금천구청·평택~오송 구간과 중앙선 용산~청량리~망우구간 선로를 추가로 건설한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광역철도사업으로는 ▲동탄~세교선 ▲서울9호선 연장(강일~미사) ▲인천2호선 연장(대공원~신안산선) ▲충청권광역철도 연장(대전조차장~옥천) ▲양산울산광역철도 등 5개가 후보사업으로 선정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 모성 ▶3면



파독 간호사 50년  
광주출신 김은숙씨  
영화같은 삶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 무등산 자락에 생태문화공원

충효동 광주호 인근 4만㎡에 150억 투입 탐방교육관 등 조성

이르면 오는 2017년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북구 충효동 광주호 인근 4만4000여㎡에 무등산 생태체험관과 탐방교육관 등을 중심으로 한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상반기에 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환경기준 부

합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생태체험관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숙박을 하며 무등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탐방교육관과 테마시설원 등도 들어선다.

이 문화공원은 인접한 광주호 호수생태공원의 생태학습장 등과 연계해 공원 조성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항상 여러분들 성원에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 풍 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수석부회장  
송죽레저관광 대표이사

블루나레 전경

골드스텔라 전경

수학여행, 기업연수, 등반, 단체관광 전문

**블루나레 (제주 ↔ 완도)**  
제주-육지 최단시간 1시간40분

**골드스텔라 (제주 ↔ 여수)**  
초호화 대형여객선

한일고속 대표대리점 HANIL EXPRESS 송죽레저관광 T 064-747-8000 F 064-747-2590 H 010-6865-7000